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정상준*

《요약》

본 연구는 정조 대 초계문신이 문과에 진출하는 추이를 분석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초계문신의 명단을 확정하고,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는지를 살펴 보고, 문과 급제 과정에서 이들의 사학유생 여부, 사학 과시 우등여부, 소과 합격 여부, 성균관 과시 우등 여부, 대과 급제 경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초계문신은 총 17회(의정부 주관 10회, 정조 특교 7회)에 걸쳐 143명이 선발되었는데, 정조는 초계문신의 선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의정부가 뽑아 올린 초계문신과 정조가 특교로 뽑은 초계문신 모두 정조가 개인의 면면을 살핀 후에 선발되었다. 둘째 문학에 재능이 있는 이들이 초계문신으로 선발되었다. 정조는 각종 과시의 답안지를 직접 채점하고 과시의 우등자를 소견하는 과정을 통해 유생들의 문예능력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셋째 사학과시 우등자의 비율이 31명(21.7%)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초계문신이 뽑힌 37개의 방에서, 초계문신의 선발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5명이었는데, 특교로 뽑힌 두 명을 제외하고 29명(52.7%)이 초계문신이 되었다. 즉 사학과시 출신 2명중 1명이 초계문신이 된 셈이다. 넷째 소과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는 비율이 54.5%로 정조 대 문과 급제자가 소과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는 비율 31.1%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다섯째 초계문신들은 문과에 급제하기 전 수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성균관 과시에 응시하였다. 초계문신 중 성균관 과시우등자의 비율은 73.4%로 초계문신의 대부분이 성균관 과시 우등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과에서는 직부전시자의 비율이 50.2%로 가장 높았고 정시와 증광시가 각각 20.3%, 14.7%를 차지하였다. 식년시는 2.1%에 불과하였는데, 정조 대 문과급제자의 46.7%가 식년시인 점을 고려한다면 독특한 경향이다.

【주제어】 초계문신, 초계문신제도, 사학과시, 성균관과시, 교육선발제도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I. 서론

초계문신제도는 당하관 가운데 37세 이하의 연소한 문신을 선발하여 「문신강제절목(文臣講製節目)」에 따라 교육하고 40세가 되면 감하(減下)하여 국정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정조 4년에 문풍(文風)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문신중 당하관을 대상으로 연령을 한정하여 월강(月講)과 순시(旬試)를 실시하고 근면과 태만을 헤아려 상벌을 행하라는 정조의 명에서¹⁾ 비롯되었다. 이듬해에 정조는 「문신강제절목」을 반포하고,²⁾ 서정수(徐鼎修)등 20명을 선발한 것을³⁾ 시작으로 즉위기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143인을 초계문신으로 선발하였다.⁴⁾ 정조는 이처럼 이미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제수된 이들 중 연소한 이들을 다시 뽑아서 교육하고 시험하였는데, 심상규(沈象奎)는 『정조실록』 부록에 수록된 『천릉지문(遷陵誌文)』에서 초계문신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왕이 문신들이 전경(專經)의 강독과 월과(月課)의 제술을 하다 말다 그만두는 것은 학자를 육성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여 의정부로 하여금 승문원의 참상(參上)과 참하(參下)로서 37세 이하인 사람만 뽑아서 아뢰라고 한 다음, 다달이 열흘마다 경사(經史)를 강하고 정문(程文)을 시험하여 우열을 가려 상벌을 시행하였다. 항상 권과(勸課)하여 온갖 정성을 기울여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신축년에 선발한 이후 무릇 10회를 선발하였는데, 지금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은 대부분 이때 선발된 사람이다.⁶⁾

1)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1月 4日, 上命書傳教曰 文風不振 由培養之失其本也. 譽髦之盛 尙矣不可論 如詞翰小藝 亦未能躡等 而襲取 必須磨礪激礪 然後乃可成就而需用 … 若就文臣堂下中 限其年廣其選 月講經史 旬試程文 月終而考之 較勤慢行賞罰 未必不爲振文風之一助也. 文臣參上參下年幾歲以上人抄啓.

2) 『正祖實錄』 正祖 5年 2月 18日, ○內閣進抄啓文臣講製節目.

3) 『正祖實錄』 正祖 5年 2月 17日, …(중략) 至是議政府抄啓 講製文臣 徐鼎修 李時秀 洪履健 李益運 李宗燮 李東稷 李顯默 朴宗正 徐龍輔 鄭東浚 李集斗 金載瓚 李祖承 吳泰賢 趙興鎭 李錫夏 洪仁浩 曹允大 李魯春 金熙采.

4) 『초계문신제명록(抄啓文臣題名錄)』에는 138명이 수록되어있고 5명이 누락되었는데 정조 5년에 선발된 정동준(鄭東浚)·오태현(吳泰賢)·조흥진(趙興鎭)·김희채(金熙采)와 정조 7년에 선발된 이도겸(李顯道)이다.

5) 초계문신제도는 정조 대 이후 중단되었다가 1847년(헌종 14) 헌종 대에 다시 시작되었다. 헌종은 1847년(헌종 14)과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초계문신 56인을 선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조 대의 초계문신만을 다루고 있는데 헌종 대의 경우 명단은 있지만, 초계문신제도 운영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아 정조 대의 초계문신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천릉지문』은 심상규가 정조의 행적을 개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심상규는 초계문신출신으로 판서를 두루 역임하고, 영의정과 대제학을 지낸 바 있는데, 그런 만큼 인용문은 당시 초계문신제도의 실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용문에 따르면 정조는 온갖 정성을 기울여 초계문신을 교육하였고, 이들의 대부분이 조정의 공경대부가 되었다고 한다. 초계문신이 심상규의 말처럼 정성스럽게 교육되었고, 대부분 고관대작이 되었다면, 이들은 여러 문과급제자들 중에서도 주요인재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초계문신이 되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당대의 평가처럼 고위직을 많이 역임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정조 대 인재의 선발과 교육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⁷⁾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초계문신이 당대의 평가처럼 우수한 인재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초계문신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단적 조사란 어떤 과정을 거쳐 문과에 급제하였는지, 급제 이후에는 어떤 관직을 역임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⁸⁾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가운데에서 우선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요 분석 내용은 초계문신의 선발상황, 선발기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이다. 이를 통해 초계문신이 언제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정조 대 전체문과급제자와 비교하였을 때 이들이 갖는 특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초계문신의 명단은 『초계문신제명록(抄啓文臣題名錄)』을 이용하였고, 문과급제경로분석에서 초계문신의 사학과시정보는 『반상(泮庠)』을 성균관 과시정보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대·소과 정보는 문과방목(文科榜目)과, 사마방목(司馬榜目)을 참고하였다.

6) 『正祖實錄』, 附錄續編, 遷陵誌文, 王 以文臣專經之講 月課之製作輟無常 非作成之道 命政府 抄啓槐院參上參外三十七歲以下人 月講經史 旬試程文 考優劣行賞罰. 時常勸課 至誠不倦. 自辛丑選以後 凡十選 今之公卿大夫 多是選中人也.

7) 초계문신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초계문신강제절목』을 분석하는 내용과 정조의 문체반정에 관한 연구에 치중되어있다. 정옥자(1981), 「규장각 초계문신 연구」, 『규장각』, 4, 정옥자(1981), 「초계문신교육과 문체정책」, 『규장각』, 6, 최두진(2009), 「정조대의 초계문신 교육제도 연구」, 『교육사상연구』, 23-1. 등 박현순은 정조 대 후반인 정조 16년(1792), 정조 18년, 정조 24년의 초계문신 가운데는 직부전시자가 36명으로 69.2%를 차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박현순(2014),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p.201. 각주 58.

8) 최광만(2018),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자의 과거 진출 추이」, 『한국교육사학』, 40-3 p 201.

II. 초계문신 선발상황

정조는 초계문신의 선발이 필요할 때, 의정부에 명하여 근래에 발표된 방에서 인원을 뽑아 올리게 하였다.⁹⁾ 초계문신은 총 17회에 걸쳐 선발되었는데, 영의정·좌의정의 주관 하에 의정부에서 뽑아 올린 것이 10회, 정조가 특교로 뽑은 것이 7회이다. 초계문신의 명단은 『초계문신제명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름, 생년, 자, 본관, 선발년도, 선발 주관자가 수록되어있다. 초계문신의 선발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정조 대 초계문신 선발상황¹⁰⁾

연도	주관	선발인원
정조 5년 2월 17일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서정수(徐鼎修) 등 20명
정조 7년 4월 24일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이현도(李顯道) 등 17명
정조 8년 11월 9일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이서구(李書九) 등 7명
정조 10년 11월 1일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정만석(鄭晩錫) 등 6명
정조 11년 1월 26일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유경(柳耕) 등 5명
정조 13년 3월 20일	좌의정 이성원(李性源)	서영보(徐榮輔) 등 13명
정조 13년 3월 22일	정조 특교	김희순(金羲淳), 이동면(李東冕)
정조 14년 9월 30일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조득영(趙得永) 등 19명
정조 16년 3월 23일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이조원(李肇源) 등 10명
정조 18년 4월 7일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김근순(金近淳) 등 22명
정조 19년 3월 23일	정조 특교	김희주(金熙周), 신봉조(申鳳朝)
정조 19년 4월 8일	정조 특교	김처암(金處巖) 등 3명
정조 19년 9월 15일	정조 특교	김이영(金履永)
정조 22년 4월 12일	정조 특교	김계온(金啓溫)
정조 23년 추정	정조 특교 추정	이홍겸(李弘謙)
정조 24년 4월 21일	영의정 이병모(李秉模)	이영하(李泳夏) 등 13명
정조 24년 윤 4월 12일	정조특교	김석현(金碩鉉)
합계	-	143명

초계문신은 1771년(영조 47년) 식년시 방부터, 1800년(정조 24년) 별시 방에 든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기간에는 총 61번의 문과가 열렸는데, 그 중 37개의 방에서 초계문신이 뽑혔다.¹¹⁾ 37개의 방에서 총 975명이 뽑혔는데, 이 중 초계문신 선발

9) 『承政院日記』 正祖 14年 2月 25日, …又命書傳教曰, 既經昨年冬榜, 今春兩榜, 內閣講製文臣抄啓事, 政府內閣知悉. …

10) <표 1>은 『초계문신제명록』을 기준으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를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당시 37세 이하로 초계문신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이 490명이었다.¹¹⁾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초계문신으로 뽑혔을까? 우선 초계문신을 선발하는 장면을 통해서, 초계문신선발과정의 특징을 살펴보자.

정조: 이번에 두 개의 방목(榜目)이 나온 뒤로 초계문신(抄啓文臣)의 인원수를 추가하려고 하였다. 홍의호(洪義浩)의 훌륭한 재주는 내가 익히 아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문학(文學)에 재능이 있는 선발할 만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직 만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며칠 전 하교하였던 것인데, 경이 마침 들어왔으니 적합한 사람을 한번 아뢰어 보라.

서명선: 신방(新榜)에 든 사람 중에서는 한홍유(韓興裕), 한치응(韓致應), 윤우열(尹羽烈), 유경(柳暉)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선발하기에 적합하고, 구방(舊榜)에 든 사람 중에서는 이서구(李書九), 한상신(韓商新), 김효건(金孝建), 정동관(鄭東觀)이 있습니다.

정조: 한치응은 이번 과작(科作)이 매우 좋았고, 이서구의 박학(博學)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시험해 본 적이 없으며, 한홍유도 문재(文才)가 있다고 하고, 김효건은 훌륭한 재주를 아낄 만하다. 다만 대부분 청주서(廳注書)의 직임에 있으므로 만일 초계문신에 포함시키게 되면 실로 아울러 행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박시수(朴著壽)는 연소(年少)하여 아낄 만하니, 초계문신 중에 어찌 이러한 사람을 누락시킬 것인가.

서명선: 박시수는 신의 형(兄)의 외손(外孫)이니, 설사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감히 뽑아서 포함시키겠습니까.

정조: 천거하는 것이 공정하다면 어찌 이에 구애될 필요가 있겠는가.

서명선: 초계문신의 선발에는 문예(文藝)가 성취된 자가 아니면 구차하게 채우기 어렵습니다.

정조: 내가 아직 만나 보지 못한 사람은 모두 가주서(假注書)에 차임하여 한번 임시를 거치게 하되, 초계문신을 하루 이틀에 선발하기가 어려우면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더라도 무방하다.¹²⁾

11) 37개의 문과는 1771 식년시, 1773 증광시, 1774 식년시·정시·증광시, 1775 정시·정시2·정시4, 1777 증광시, 1778 알성시·정시, 1779 남한별시, 1780 식년시, 1782 알성시·정시, 1783 증광시·정시·식년시, 1784 정시·정시2, 1785 정시, 1786 별시, 1787 정시, 1789 알성시·식년시·정시, 1790 알성시·증광시, 1792 식년시, 1794 알성시·정시, 1795 식년시·정시, 1796 별시, 1798 식년시, 1799 알성시, 1800 별시이다.

12) 초계문신이 모두 37세 이하에서 선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집두(李集斗 38), 김희채(金熙采 38), 최광태(崔光泰 51), 오태증(吳泰曾 41), **신봉조(申鳳朝 51)**, 김처암(金處巖 41), 김이영(金履永 40), 김석현(金碩鉉 54) 8인은 37세를 초과하여 선발되었다.

13) 『承政院日記』 正祖 8年 10月 20日, 今番兩榜出後 欲加抄啓員數 而洪義浩才華 予所稔知 其外想多文學可選之人 而予未見之故 有日前下教 卿適入來 試奏可合之人 可也. 命善曰 臣未能詳知

인용문은 정조가 초계문신 추가선발에 관해 영의정 서명선(徐命善)과 나눈 대화이다. 인용문에서는 초계문신선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엿볼 수 있다. 첫째 정조가 초계문신의 선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조는 의정부에서 뽑아 올린 이들의 면면에 대해 서명선과 논의하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계문신 선발에 적합한 문신들과 현직으로 인해 초계문신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김효건, 누락된 박시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조가 초계문신의 선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학(文學)에 재능이 있는 이들이 초계문신으로 선발되었다는 점이다. 정조는 문재(文才)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서명선 또한 문예가 성취된 자가 아니면 초계문신으로 뽑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셋째 정조가 직접 시험해 본 인물을 선호하였다는 점이다. 정조는 한치응과 이서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데, 직접 시험한 한치응에 대해서는 과작이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지만, 이서구에 대해서는 박학함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아직 시험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 한치응은 정조 8년(1785)에 정조가 직접 주관한 정시에서 표문(表文)으로 수석을 차지하였다. 이서구는 영조 50년(1774)에 정시에서 부문(赴門)으로 급제하였지만 영조 대에 급제하여 정조가 직접 시험해 본 적이 없었다. 정조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이들은 가주서에 차임하여 입시하게 할 것을 명한다. 김효건을 제외한 7인은 다음 달에 초계문신으로 뽑혔다. 그렇다면 정조는 어떻게 유생들의 문재(文才)를 파악하였을까? 정조가 특교(特敎)로 초계문신을 뽑는 장면을 살펴보자.

응제에서 과방마다 수석을 차지한 김처암(金處巖), 동당(東堂) 생획(生畫) 책문(策問)에서 장원한 이영발(李英發)은 강제 문신으로 추가로 뽑아라. 부유한 집안에 이렇게 박학다식한 선비가 있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시속에 섞이지 않고 담박하니 기뻐할 만하다. 신급제자(新及第者) 홍식주(洪奭周)도 추가로 뽑도록 의정부와 내각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¹⁴⁾

某人之可合 而新榜中 如韓興裕·韓致應·尹羽烈·柳畊 俱合是選 舊榜則有李書九·韓商新·金孝建·鄭東觀矣. 上曰 韓致應今番科作甚善. 李書九之博洽 予已聞之 而末有所試 韓興裕亦有文才云. 金孝建則其才華可愛 … 且朴著壽年少可愛 抄啓中 豈漏此等人乎? 命善曰 著壽即臣兄之外孫 年太幼 學未進 恐不能堪講製之任 設令能當 臣何敢抄入乎? 上曰 所薦者公 何必拘此乎? 命善曰 抄啓之選 非文藝成就者 難以苟充矣. 上曰 予所未見之人 俱差假注書 使之一經入侍 可也. 抄啓 如難一兩日簡選 則待春舉行 無妨矣.

14) 『承政院日記』 正祖 19年 4月 8日, 冷煖應製 每榜居魁 金處巖 東堂生畫 策文壯元李英發 講製文臣加抄 鐘鼎之家 有此該洽之士 而年雖少 樣不入俗 沖澹可喜. 新及第洪奭周 亦爲加抄事 令政府 內閣知悉.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인용문은 정조가 초계문신친시의 시권을 직접 채점한 후에, 초계문신을 추가로 선발하는 내용이다. 정조는 세 명의 초계문신을 추가로 뽑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응제에서 과방마다 수석을 차지한 점, 문과 복시 종장에서 장원을 한 점, 부유한 집안의 박학다식한 선비인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김치암은 총 19차례에 걸쳐 성균관 과시(우등15)을 경험하였다. 1794년에는 정조가 직접 답안을 채점한 후에 앞으로 응시할 문과에서 회시에 낙방하더라도, 여러 차례 직부회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했다.¹⁶⁾ 그리고 1년 후 유생응제에서 수석을 차지하고 직부전시은사를 받아, 41세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김치암의 경우 여러 차례 성균관 과시(우등)를 통해 정조가 문제를 파악하였다. 이영발은 식년시 복시 종장 책문에서 수석을 차지하였다. 의성출신으로 과시(課試) 우등이력은 없는데, 책문의 답안지를 통해 정조가 문제를 파악하였다. 정조가 부유하다고 언급한 홍석주는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의 손자로 두 차례 일차유생전장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직부전시은사를 받고 22살에 식년시 갑과 3위로 급제하였다. 홍석주도 성균관 과시(우등)를 통해 정조가 문제를 파악한 경우이다. 위와 같이 정조가 특교로 초계문신을 선발한 사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초계문신 특교 선발사례¹⁷⁾

특교날짜	이름	특이사항	정조가 언급한 선발이유
13년 3월 22일	김희순(金羲淳)	사학과시우등 춘도기 제술 수석	고(故) 상신(相臣) 김상용(金尙容)의 후손으로 애석하게 선발에서 누락

15) 조선후기 『속대전』(1746, 영조22)에는 「예전」 제과(諸科) 조의 각종 과거(科擧) 뒤에 전강(殿講) · 절일제(節日製) · 황감제(黃柑製) · 통독(通讀)의 성균관 과시 시행 절차가 수록되었다. 성균관 과시의 우등자들은 과시의 중요도 및 성적에 따라 직부전시(直赴殿試), 직부회시(直赴會試), 급분(給分)의 은사를 받곤 했는데, 직부전시는 문과 전시에 직부되는 것으로 급제와 다름없었으며, 직부회시는 문과 초시 면제, 급분은 문과 초시 응시 시 일종의 간산점을 주는 은사였다. 정지연(2018), 숙종-정조대 문과의 은사(恩賜) 사용 규정 변화 연구, 『한국교육사학』, 40-4, p. 204.

16) 『承政院日記』 正祖 18年 2月 14日, … 生員金處巖奏姓名 上曰 肅廟朝 有應製儒生四五人 竝爲賜第之例. 然以今之俗 固難如是 而御考事體則自別 以屢次初試而見落於會試者 勿令茲削 連赴屢次會試爲可 當追後下教矣.

17) 사학과시는 승보와 합제를 말한다. 승보는 매년 10-12회 시·부를 시험하여 누적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우등자 10인을 선발하고, 합제는 매년 학당마다 4회의 예비시험과 연말의 최종 시험을 통해 우등자 24명(제술16명, 고강8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소과복시직부의 특혜를 내렸다. 최광만(2016), 「『태학성전』과 『반상과시집』의 위상」, 『한국교육사학』, 41-3 p 79.

《교육사학연구》 제30집 제2호(2020. 10.)

13년 3월 22일	이동면(李東冕)	사학과시 우등	이동직(李東稷)의 아우로 애석하게 선발에서 누락
18년 3월 10일	최광태(崔光泰)	춘도기 제술 수석	연환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히 선발
18년 3월 10일	오태증(吳泰曾)	사학과시우등 일차유생제술 수석	
18년 4월 7일	이동만(李東萬)	일차유생제술 수석	임금이 채점한 시권(試券)에서 누차 높은 등급을 맞아 사부(詞賦)와 필한(筆翰)을 익히 알고 있음
18년 4월 7일	황기천(黃基天)	일차유생제술 수석	
19년 3월 23일	김희주(金熙周)	추도기제술 수석	세 번의 책문을 통해 급제
19년 3월 23일	신봉조(申鳳朝)	사학과시우등 일차유생제술 수석	부를 월등하게 잘 지음
19년 4월 8일	김처암(金處巖)	유생응제 수석	응제에서 과방마다 수석
19년 4월 8일	이영발(李英發)	-	동당 생희 책문 장원
19년 4월 8일	홍석주(洪奭周)	유생응제 수석	부유한 집안의 박학다식한 선비
19년 9월 15일	김이영(金履永)	유생응제 수석	유생응제 시권의 답안으로 인함
22년 4월 12일	김계온(金啓溫)	춘도기 제술 수석	문사가 뛰어나다고 잘 알려짐
24년 윤4월 12일	김석현(金碩鉉)	일차유생제술 수석	최광태 신봉조의 예로 선발

<표 2>에서 주목되는 점은 정조가 각종 과시를 통해 이들의 문예능력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교로 선발 된 이들은 대부분 사학과시에서 우등을 경험 했거나 성균관 과시에서 수석을 했는데, 정조는 이들이 문과에 급제하기 전부터 이들을 알고 있었다. 김희순과 이동면은 정조 13년에 서영보 등 13명이 선발 되었을 때 정조가 선발에서 누락된 것을 아쉬워하며 대신의 가족임을 언급하며 특교로 추가 선발 하였다. 최광태와 오태증은 선발당시 37살을 넘겨 초계문신의 선발조건에 해당 되지 않았는데, 정조가 문과 급제자 소견 때에 특교로 뽑아 18년 의정부에서 올린 명단에 함께 초계되었다. 이동만과 황기천은 정조가 여러 차례 직접 채점하여 문장력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18년 의정부에서 올린 초계문신 명단에서 누락되어 특교로 추가선발 하였다. 이처럼 정조는 의정부에서 올린 초계문신의 명단에서 누락된 이들을 직접 가려낼 정도로 당시 유생들의 문예능력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초계문신의 선발 과정에서 문재(文才)가 중요한 기준이었던 만큼, 유생들의 문재(文才)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과보다는 자연스럽게 각종 과시(課試)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과시는 각종 문과에 비해 실행시기가 정례적이고 실행빈도가 잦아, 정조가 이를 통해 유생들의 문예(文藝) 성취과정을 직접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조가 각종 과시를 통해 유생들의 문예능력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초계문신의 거주지 분포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아래의 <표 3>은 초계문신의 문과

급제 당시 거주지를 지역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3> 초계문신의 문과 급제 당시 거주지

지역	한성 (%)	경기도 (%)	충청도 (%)	경상도 (%)	강원도 (%)	전체
인원	115(80.4)	14(9.8)	4(2.8)	7(4.9)	3(2.1)	143(100.0)

<표 3>에 의하면, 초계문신은 문과 급제 당시 115명(80.4%)이 한성에 거주하고 있었고, 한성과 경기지역을 합하면 그 수치는 129명(90.2%)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지방출신은 14명(9.8%)으로 확인된다. 초계문신의 대부분이 한성과 한성 인근지역에서 거주한 셈이다. 이러한 초계문신의 지역분포는 정조의 초계문신 선발기준과 관련 있어 보인다. 정조가 직접 유생들을 시험하여 문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초계문신의 대부분이 한성과 한성 인근 경기지역에서 사학과 성균관에 소속되어 사학과시와 성균관과시에 응시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초계문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문과에 급제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III.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초계문신의 선발상황을 통해 정조가 초계문신 선발에서 문재를 중요시하였고, 각종 과시를 통해 당시 유생들의 문예능력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초계문신에 선발된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문과에 급제하였을까? 우선 정조가 훌륭한 재주를 익히 알고 있다고 평가한 홍의호¹⁸⁾의 문과급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표 4> 홍의호 문과급제과정

일시	시험종류	시제	성적	혜택
정조 2년 7월	승보시	시	예비우등	
정조 2년 12월	승보시	시	최종우등	

18) 각주 13번 참고.

정조 4년 2월 10일	소과: 진사시		2등(二等) 8위	
정조 6년 1월 10일	춘도기제술	책	2등	직부회시
정조 6년 9월 15일	구일제	이십운배율	1등	직부회시
정조 7년 1월 25일	춘도기제술	책	3등	지·필·묵
정조 7년 7월 7일	칠석제	표	1등	직부회시
정조 7년 9월 8일	구일제	이십운배율	2등	직부회시
정조 7년 11월 1일	황감제	진	2등	직부회시
정조 8년 3월 10일	삼일제	부	2등	2분
정조 8년 7월 9일	칠석제	표	3등	1분
정조 8년 9월 26일	문과: 정시		병과 2위	

정조는 승보시를 과문에 입문하는 시험이라고 여겼는데,¹⁹⁾ 홍의호는 사학의 유생으로서 승보시 예비우등을 하고, 승보시 최종우등을 하였다. 승보시우등 후에 소과에 입격하고²⁰⁾ 3년동안 8차례 성균관 과시 우등을 거쳐 직부회시의 특혜를 이용하여 정시에 급제했다. 즉 홍의호는 사학 → 사학과시우등 → 소과입격 → 성균관과시우등 → 문과급제의 과정을 거쳐 초계문신이 되었다. 홍의호는 사학과시에서 문명을 얻고, 성균관 과시에서 다양한 변려문에서 우수한 면모를 보이며 문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²¹⁾

모든 초계문신이 홍의호와 같은 과정을 거쳐 문과에 급제하고 초계문신이 된 것은 아니지만, 홍의호를 포함한 몇몇 초계문신의 이러한 문과급제과정은 사학과시 우등경험, 소과 입격여부, 성균관과시 우등경험, 문과 정보를 조사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아래에서는 사학, 소과, 성균관 과시, 문과로 절을 나누어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보겠다.

1. 사학

사학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사학과시 우등여부와 사학재임 역임여부이다. 사학과시는 문예(文藝)를 권장하고 인재(人材)를 성취시키려는 뜻에서 나온 시험으로²²⁾

19) 『承政院日記』 正祖 21年 11月 21日, 陞試卽是科文入頭處, 爲泮長者考試之際, 或有文體筆劃之嚙殺輕斜者, 一切黜去, 使爲儒生者, 曉然知好惡之所在, 則豈無丕新改觀之效乎.

20) 홍의호가 승보시 최종우등으로 받은 소과직부회시의 자격을 통해 소과에 입격한 것은 아니다.

21) 홍의호는 글재주뿐만 아니라 집안 역시 좋았는데, 아버지 홍수보(洪秀輔)와 할아버지 홍중효(洪重孝)가 모두 판서를 역임하였다. 이후에 홍의호 역시 판서에 오른다. 그리고 앞서 정조가 부유한 집안이라고 칭한 홍석주 역시 좌의정에 올랐는데, 홍의호나 홍석주의 사례는 초계문신의 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단순히 과문에 입문하는 시험 이상으로 조선후기 인재의 교육과 선발에서 중요한 통로라는 인식이 있었다. 영조 대의 영의정 서명균이 선비들이 승보·합제를 통해 문명(文名)을 얻고, 생원·진사의 장원이나 문형(文衡)이 이 시험에서 배출된다고 진술한 것은 단적인 예이다.²³⁾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쳐 실력이 검증된 사학과시 우등자들은 소과에서뿐만 아니라 문과급제에서도 두각을 드러냈고, 관직에 진출한 후에는 주요 관직을 역임했다.²⁴⁾ 이처럼 당시 유생들이 사학과시를 통해 문명을 얻고 주요 인재로 인정 받았다면, 초계문신 중 사학과시 우등자는 얼마나 될까? 초계문신의 사학과시 우등 이력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초계문신 사학과시 우등이력²⁵⁾

구분	사학과시 우등자	중복우등자	중복우등 횟수
최종우등	23	11	2회-7회
예비우등	8	1	2회

최종우등자의 경우 23명 중 11명(47.8%)이 최소 2회에서 7회까지 중복 우등을 하였고, 예비 우등자의 경우 8명중 1명(12.5%)이 2회 중복 우등을 하였다. 최종 우등자가 예비 우등자에 비하여 중복으로 우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종 우등자와 예비 우등자를 합하면, 초계문신 143명중 31명(21.7%)이²⁶⁾ 사학과시 우등을 경험하였는데, 초계문신 다섯

22) 『承政院日記』 正祖 6年 2月 25日, 澤徵啓曰, 國家之設陞學, 蓋出於勸獎文藝, 成就人材之意, 而互對分排, 誠一痼弊, 在前間或不免, 挽近尤爲特甚, 假令彼此之間, 雖有超異之作, 拘於定額而未參, 或有低下之類, 反緣名色而猥選, 榜眼一出, 先數某邊之幾人, 當之者視同規例, 聽之者看作故常, 乃使廿六人課試之舉, 便成大小科紛競之階, 揆以事面, 寧不慨然? 從今以後, 勿拘名目之分排, 只考文藝之優劣, 俾革濫竽之弊, 亦無遺珠之歎, 實爲目下急務, 請申飭國子長, 洞革計較之弊, 亟復勸獎之規. 上曰, 依啓.

23) 최광만(2019),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 출신의 관직 이력 분석」, 『한국교육사학』, 41-3, p 79.

24) 최광만(2018),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자의 과거 진출 추이」, 『한국교육사학』, 40-3, 최광만(2019),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 출신의 관직 이력 분석」, 『한국교육사학』, 41-3, 김경용(2019),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출신 대체학 연구」, 『교육사학연구』, 29-2, 이상무(2019), 「조선시대 사학 과시 우등 문과 급제자와 지방(강원·충청) 출신 급제자 간의 관직 진로 비교 시론」, 『한국교육사학』, 41-4.

25) 표에서는 우등이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최종우등자와 예비우등자를 구분하였지만, 이하에서는 최종우등자와 예비우등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최종우등과 예비우등여부에 따라 소과 입격 여부나 성균관 과시 우등의 차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초계문신의 사학과시 우등동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사용하였다.

26) 사학과시 출신이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사학과시에 응시하고 있었다고 봐야한

명 중 한명이 사학과시 출신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초계문신이 뽑힌 방내에 사학과시 우등자 수이다. 초계문신이 뽑힌 37개의 방에서²⁷⁾ 사학과시 우등자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한자는 총 112명이었는데, 이들을 초계문신의 선발조건에 맞게 분류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초계문신 선발 방내 사학과시 우등자 상황

구분	37세 이하	38세 이상	합계
초계문신	29(52.7)	2(3.5)	31(27.7)
비초계문신	26(47.3)	55(96.5)	81(72.3)
합계	55(100.0)	57(100.0)	112(100.0)

112명 중 37세 이하로 초계문신의 선발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55명이었다. 55명중 29명(52.7%)이 초계문신이 된 것이다. 37세를 넘겨 정조의 특교로 뽑힌 2명을²⁸⁾ 제외하고도 사학과시 출신 2명중 1명꼴로 초계문신이 된 셈이다. 이는 사학과시 우등을 통해 일찍이 문명을 얻은 이들의 상당수가 이후에 초계문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계문신의 이력을 조사하는 과정 중 사학단계에서 사학과시 우등여부와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학재임역임여부이다. 정조는 성균관의 재임과 사학의 재임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사학의 재임을 춘·추도기에 응시하게 하였다.²⁹⁾ 아래의 인용문은 정조가 사학재임을 춘·추도기에 응시하게 한 후 그들을 소견하는 장면이다.

정조: 사학 유생들 중에 전정에 들어온 자들은(필자주: 사학재임) 세신(世臣)의 아름다운 자제가 아님이 없고 모두 가르칠 만한 훌륭한 선비들이니, 뒷날 세상에 필요한 인재들을 장차 이 전정 중에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특별히 시제(試製)를 명한 것은 그 화려한 문장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다.³⁰⁾

다. 초계문신 중 사학출신으로 검색되는 사람은 87명이다. 이 논문에서 사학출신은 검색되는 경우만 숫자를 세었는데 사학과시우등이력, 사학재임이력과 『승정원일기』 상소문에 사학으로 표기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많은 초계문신이 유학신분으로 성균관 과시에 응시한 점이나 한양에 거주하며 정시, 알성시, 별시에 응시하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초계문신의 대부분이 사학유생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7) 각주 10번 참고

28) 오태중(吳泰曾 41)과, **신봉조(申鳳朝 51)이다.**

29) 『承政院日記』 正祖 6年 1月 10日, 命書傳教曰 館學無異 館儒齋任雖有押班之例 學儒齋任 元無押班之事 此後春秋到記 學儒·齋任 一體押班事 定式 應試與否 亦依未赴到記之館儒·齋任例舉行.

정조: 어제 일은 비록 성대한 일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뒷날의 경상(卿相)이 모두 그중에서 나올 것이며 선비들의 문재(文才)와 용모가 실로 진취(進就)된 사람이 많으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기고 기쁘게 생각한다. 이곤수와 심상규를 즉시 입시하게 하라.³¹⁾

인용문을 보면, 정조가 이들을 남다르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정조는 이들이 세록지신(世祿之臣)의 자제가 아닌 이가 없다고 하고, 문재가 있으며 장차 이들 중에 관서와 정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심상규의 아버지 심염조는 당시 규장각 직제학이었고 이후에 예조참판,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고, 이곤수의 아버지 이성원은 당시 병조판서였고 이후에 좌의정을 지냈다. 심상규와 이곤수는 소견 당시 각각 16살, 21살이었는데 부를 지어 정조의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24살, 21살에 문과에 급제하고 초계문신이 되었다. 후에 이곤수는 27살에 요절하였지만, 심상규는 정조의 말처럼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다.

이처럼 사학재임들이 문재가 있고 좋은 집안의 자제들이었다면, 초계문신 중 사학재임을 역임한 이들은 몇 명일까? 사학재임을 역임한 이는 23명(16.1%)이다. 사학재임이 시험을 통해 임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사학재임역임 여부를 문과급제과정에서의 방점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의 집단에서 16.1%가 초계문신이 되었다는 점은 제한적이거나 이들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소과

정조는 유생들을 성균관에 유입시키고, 이들이 제술과 경학을 겸비하도록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태학생원점절목(太學生圓點節目)을 통해 성균관의 거재 인원을 늘리고 성균관 과시의 응시자격을 원점생으로 제한하여 성균관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였다.³²⁾ 초계문신이 여러 성균관 과시

30) 『承政院日記』 正祖 6年 1月 11日, 上曰, 學儒之入庭者 無非世臣之佳子 盡是可教之良士 他日需世之材 將自此庭中得來. 今予之特命試製者 非特欲試其藻華而已 此是初見君父之日 其於奏對進止之際 固宜檢飭 以正士風矣. 今欲先聞其讀書聲 呈券諸生 以次上殿 三經中從其熟習者讀奏而可誦者亦誦奏 可也.

31) 『承政院日記』 正祖 6年 1月 12日, 上曰, 昨日事, 雖謂之盛舉, 可也. 他日卿相, 皆出於其中, 而多士之文才容貌, 實多進就之人, 予甚嘉悅. 鼎修曰, 聖教至當. 上曰, 李崑秀·沈象奎入來,

32) 최광만(2015), 「정조 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 『한국교육사학』, 37-4, p. 108.

를 통해 문재를 인정받았던 만큼,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과정에서 소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초계문신의 소과 합격률은 어느정도일까? 이 절에서는 사학과 연관 지어 소과합격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사학과시를 기준으로 우등자와 미우등자를 나누어 소과에 합격한 결과를 살펴보자.

<표 7> 초계문신 소과 합격 상황

	소과 미합격	소과합격			소과 합격자 합계	합계
		생원시	진사시	양시		
사학과시 우등자	14 (45.2)	4 (12.9)	13 (41.9)	0	17 (54.8)	31 (100.0)
사학과시 미우등자	51 (45.5)	34 (30.4)	22 (19.6)	5 (4.5)	61 (54.5)	112 (100.0)
합계	65 (45.5)	38 (26.6)	35 (24.4)	5 (3.5)	78 (54.5)	143 (100.0)

초계문신은 전체 143명 중 78명(54.5%)이 소과에 합격하였다. 사학과시 우등자는 31명 중 17명(54.8%)이 합격하였고³³⁾, 사학과시 미우등자는 112명 중 61명(54.5%)이 합격하였다. 사학과시 우등을 거친 이들의 특징은 생원시 보다 진사시에 합격한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학과시의 과목과 『반상』 자료의 성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사학 과시 우등자들은 시(時)·부(賦)로 선발되었는데 진사시의 과목 역시 같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사시를 선호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³⁴⁾ 『반상』은 사학과시 중 제술시험과 관련된 기록으로 매년 승보의 최종 우등자 10명과 합제의 제술 우등자 16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만, 합제의 고강 우등자 8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³⁵⁾ 상대적으로 경의(經義)에 밝은 유생들의 명단이 빠져있는 셈인데, 이로 인해, 진사시로 쏠리는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여진다.³⁶⁾ 이외에 사학과시 우등자와 사학과시 미우등자의 소과 합격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3) 사학과시에서 최종 우등을 경험한 23명 중 소과직부의 특혜를 사용하여 소과에 합격한 사람은 5명이다. 최종우등을 한 사람 13명 예비우등을 한사람 4명이 소과에 나아갔다.

34) 최광만(2018),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자의 과거 진출 추이」, 『한국교육사학』, 40-3, p 212.

35) 최광만(2017),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운영실태: 『반상』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9-2, p 99.

36) 이상무(2019), 조선시대 사학 과시 우등 문과 급제자와 지방(강원·충천) 출신 급제자 간의 관직 진로 비교 시론, 『한국교육사학』, 41-4, p. 61.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그렇다면 초계문신의 소과 합격률은 다른 유생과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될까? 초계문신의 소과 합격률은 이후에 문과정보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정조 대 문과급제자중 소과를 거쳐 문과에 급제한 인물들과 비교해야하기 때문이다.

초계문신의 소과 합격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사학재임을 역임한 23명 중 소과에 합격한 이가 4명(17.4%)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체 초계문신의 소과 합격률과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사학재임의 소과 합격 여부는 아래와 같다.

<표 8> 사학재임 소과 합격상황

구분	소과합격	소과미합격	합계
사학재임중 사학과시우등자	1(16.7)	5(83.3)	6(100.0)
사학재임중 사학과시미우등자	3(17.6)	14(82.4)	17(100.0)
합계	4(17.4)	19(82.6)	23(100.0)

<표 8>에 의하면 19명(82.6%)의 사학재임은 소과에 합격하지 않았다. 사학재임 중 사학과시에 우등한 이들은 6명이 있었는데 1명(16.7%)만 소과에 합격했다. 사학과시 우등을 경험하지 않은 사학재임 역시 비슷한 비율(17.6%)로 소과에 합격했다. 정조의 말처럼 이들이 문재가 있고, 장차 판서와 정승이 될 만한 인재들이라면 이들은 왜 소과에 합격하지 않은 것일까? 이른 나이에 성균관 과시에서 우등을 차지하고 문과에 급제한 것을 봤을 때, 이들이 능력이 부족하여 소과에 나아가지 않은 것 같지는 않다.

비단 이들 뿐만 아니라 소과에 합격하지 않은 초계문신들 역시 유학의 신분으로 성균관 유생들과 경쟁하여 성균관 과시에서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 이들이 소과에 꼭 합격하고자 했다면 합격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다. 이들이 왜 소과에 응시하지 않았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제도적으로 꼭 소과에 응시할 필요성을 못 느꼈음은 추정할 수 있다. 소과에 반드시 합격해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³⁷⁾, 성균관에서 거주하는 원점유생보다는 기회가 적었지만, 유학의 신분으로도 여러 성균관 과시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³⁸⁾

37) 이상무(2018), 「조선시대 문과 응시자격에서 소과 합격의 문제 검토」, 『한국교육사학』, 40-4.
 38) 최광만(2018),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자의 과거 진출 추이」, 『한국교육사학』, 40-3, p 216.

3. 성균관과시

앞서 정조가 성균관 과시를 통해 성균관 유생들의 문예능력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았다. 정조는 자신이 직접 채점한 성균관과시에서 여러 번 수석 등을 차지한 유생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였다.³⁹⁾ 이외에도 정조는 성균관과시 우등자를 소견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과작과 비교하여 성취를 평가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준다. 정조가 성균관 과시 우등자를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다.

생원과 진사가 유학(幼學)과 다른 점은 원점(圓點)이 있다는 것이고 도기와 절제(節製)가 정시(庭試)나 알성(謁聖)과 다른 점도 걸출한 사람 가운데 가장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근래 생원과 진사의 원점이 명실상부하지 않아서 막 척교하였는데, 신칙하였으면 마땅히 그 실효를 요구해야 하니 이것이 이번 도기에서 장편(長篇)을 세 번 시험한 이유이다. …(중략)⁴⁰⁾

인용문은 정조 16년 추도기에서 책문을 세 번 시험 한 후에 수석을 차지한 김희주에게 급제를 내리고, 대신들에게 전교하는 내용이다. 김희주(金熙周)는 추도기에서 수석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이후에 초계문신에 선발된다. 정조의 이러한 언급에 다소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시나 알성시보다 도기와 절제를 통해 더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다는 정조의 말은 정조가 성균관 과시를 통해 선발된 인재를 실재(實才)로 여겼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초계문신 중 성균관 과시 우등자는 얼마나 될까?

다음의 <표 8>은 초계문신의 성균관 과시 우등 정보를 조사한 결과이다. 초계문신 143명 중 105명(73.4%)이 성균관 과시 우등 경험이 있었다. 105명이 성균관 과시 우등을 경험하였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초계문신이 성균관 과시에 응시하였다고 볼

39) 정조 23년(3월 28일)에 새로 인쇄한 태학의 은배시집의 하사대상에, 정조 즉위년부터 정조 21년까지 정조가 직접 채점한 반제(泮製)에서 여러번 수석 등을 차지한 유생들 170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예이다. 170인 중 39인은 초계문신이 되었다. ○ 『承政院日記』 正祖 23年 3月 26日, 傳于徐龍輔曰, 新印太學恩杯詩集, 宙舍樓一件, 西庫十三件外, 奎章閣內閣·外閣, 政院·玉堂·春坊·鑄字所·五處史庫·成均館·四學·禮曹, 各藏一件. 泮製御考屢魁崑等儒生丙申到記居魁上舍生鄭志儉, 丁酉應製上舍生李台漢·金禧燮·沈喜永, 戊戌應製上舍生金熙朝, 辛丑應製上舍生韓允鎮·崔光泰·崔炤·金文欽·尹光顏, 幼學安有相…(중략)

40)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7月 22日, 生進之異於幼學者, 以其有圓點也, 到記節製之異於庭試, 謁聖亦以拔尤於翹楚也. 近來生進圓點, 名與實不符, 纔有飭教, 而既飭矣, 當責其實效, 此所以今番到記之三試長篇也. …(중략)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수 있다. 64명(44.8%)의 초계문신은 최소 2회에서 최대 19회까지 중복 우등을 하였 고, 이들은 각각 최소 1년에서 최대 16년까지 성균관 과시에 응시하였다.

<표 9> 초계문신 성균관 과시 우등 내역

구분	성균관과시우등자(%)	중복우등자(%)	중복우등횟수	응시기간(년)
초계문신	105(73.4)	64(44.8)	2-21	1-16
전체	143(100.0)	143(100.0)	-	-

<표 9>에 의하면 성균관 과시 우등자 중 상당수가 중복우등을 했음을 알 수 있 다. 중복우등 경험이 있는 초계문신 64명은 평균 3.8년 동안 5.3번 성균관 과시에서 우등을 경험 하였다. 이는 초계문신들이 수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성균관 과시를 통해 본인의 능력을 갈고 닦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균관 과시 중복우등 여부가 초계문 신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성균관 과시 우등 이력은 1번이지만 수 석을 차지하여 직부전시 은사를 받은 경우와 여러 번 우등했지만 수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직부전시 은사를 받은 초계문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성균관 과시에서 수석을 차지하였지만, 은사의 등급을 직부회시로 제한하여 직부전시를 받지 못한 경우와 우등이력은 1번이지만, 정 조가 사은(賜恩)을 베풀어 직부전시를 받은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도, 직부회시를 받 았다고 하여 사은을 받은 유생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이들은 어떤 과시에 응시하였을까? <표 10>은 성균관 과시를 제술과 강경을 기준으로 나누어 우등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제술과시는 절제, 응제, 춘·추도기제술이 포함되어있고, 강경과시에는 일차유생전강, 춘·추도기전강이 포함되어있다.

<표 10> 초계문신 출신별 성균관 과시 응시상황

구분	제술	강경	제술·강경	합계
생원	25(34.2)	2(15.4)	3(15.8)	30(28.6)
진사	28(38.4)	1(7.7)	4(21.1)	33(31.4)
유학	20(27.4)	10(76.9)	12(63.1)	42(40.0)
합계	73(100.0)	13(100.0)	19(100.0)	105(100.0)

<표 10>은 생원, 진사, 유학의 성균관 과시 우등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생원·진 사가 63명(60.0%)으로 유학 42명(40.0%)보다 높았다. 이는 원점유생을 대상으로 성균

관 과시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만큼 유학보다는 생원·진사가 상대적으로 응시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원과 진사의 과목별 편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유학의 경우 생원·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경과 제술·강경 동시 우등 비율이 높았다. 표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제술 우등자의 비율이 73명(69.5%)으로 크게 높았다는 점이다. 강경 과시에서 우등한 초계문신은 13명(12.4%), 제술과 강경을 동시에 우등한 초계문신은 19명(18.1%)으로 그 비율이 제술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결과가 이들이 처음부터 제술과 강경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응시한 결과인지 모두 응시하였지만, 한 과목에서만 우등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제술 우등자가 강경을 잘 하지 못하고, 강경 우등자가 제술을 잘 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술을 통해 문과에 급제한 초계문신이 초계문신과강에서 순통을 맞아 거수하는 경우도 있고, 강경과시에서 은사를 얻어 문과에 급제한 초계문신이 초계문신친사에서 거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⁴¹⁾⁴²⁾ 그렇다면 성균관 과시를 통해 문과에 나아간 초계문신은 얼마나 될까? <표 11>은 성균관 과시 우등자 중 은사를 통해 문과에 나아간 수치를 조사한 결과이다. 은사를 받은 이들의 은사사용여부는 『승정원일기』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표 11> 초계문신 문과급제 은사내용

구분	직부전시	직부회시	2분	1분	은사사용자 소계	은사 미사용	합계
제술	58(40.6)	11(7.7)	7(4.9)	4(2.8)	80(55.9)	-	-
강경	14(9.7)	4(2.8)	1(0.7)	1(0.7)	20(14.0)	-	-
합계	72(50.3)	15(10.5)	8(5.6)	5(3.5)	100 (69.9)	43(30.1)	143 (100.0)

전체 초계문신 143명중 100명(69.9%)이 성균관 과시의 은사를 사용하여 문과에

41) 심상규(沈象奎)는 응제에서 우등을 하고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초계문신의 과강에서 여러 차례 우등하였다. 김조순(金祖淳)은 1785년 일차유생전강에서 순통을 받고 직부회시 은사를 받아,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초계문신의 친사에서 여러 차례 거수하였다.

42) 사료변려문에서는 제술과시 우등자 출신과 강경과시 우등자 출신을 막론하고 초계문신 간 편차를 보이는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 지방출신인 경우(김희락 金熙洛), 문과급제과정에서 사료변려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이동면 李東冕), 문과급제과정에서 오직 강경을 통해 문과에 급제한 경우(이운항 李運恒)에 사료변려문을 잘 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조는 이 경우 사료변려문을 면해주거나(김희락), 따로 휴가를 주어 사료변려문을 연마하게 했다.(이동면·이운항)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급제하였다. 이는 초계문신의 선발과정에서 성균관 과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술과시를 통해 은사를 받은 이가 80명 강경과시를 통해 은사를 받은 이가 20명으로 제술과시를 통해 문과에 급제한 이들의 비율이 강경과시를 통해 문과에 급제한 이들보다 4배가 높았다. 직부전시 은사를 사용하여 문과에 급제한 이들은 72명(50.2%)였는데 전체 초계문신 중 절반 이상이 직부전시 은사자였던 셈이다. 이는 초계문신이 여러 번에 걸쳐 성균관 과시에서 우등을 경험하면서 최종적으로 직부전시 은사를 받아 문과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1번의 성균관 과시 우등으로 직부전시를 받은 초계문신은 27명이었고, 나머지 45명은 평균 5.7회(2-21회 중복우등)의 성균관 과시 우등을 거쳐 직부전시의 자격을 얻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직부전시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4. 문과 정보

초계문신은 문과급제과정에서 일반 문과급제자들에 비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줄까? 정조 대 문과급제자와 비교해보자.⁴³⁾ 먼저 초계문신의 소과·문과 평균 합격연령과 정조 대 소과·문과 합격자의 평균 합격연령을 살펴보자.

<표 12> 정조 대 대·소과 평균 합격연령과 초계문신의 대·소과 평균 합격연령

구분	소과 입격자		문과 급제자	
	평균 입격연령(세)	대상자 수 (명)	평균 급제연령(세)	대상자 수 (명)
초계문신	26.1	78	29.6	143
정조 대 일반 급제자	35.7	2,262	39.2	777

초계문신의 소과입격연령과 정조 대 평균 소과입격연령은 각각 26.1세와 35.7세이다. 9.6년이 차이 나는데, 초계문신이 상당히 이른 나이에 소과에 입격했음을 알 수 있다. 초계문신의 문과 급제연령과 정조 대 평균 문과 급제연령은 각각 29.6세와 39.2세다. 9.6년이 차이 나는데 소과와 마찬가지로 초계문신이 문과에 매우 빠르게

43) 초계문신과 일반 문과급제자들과의 비교는 초계문신이 뽑힌 방의 급제자들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비교대상을 모두 정조 대 문과급제자(777명)로 통일 하였는데, 정조가 선발한 만큼, 초계문신 출신과의 비교에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급제했음을 알 수 있다. 초계문신의 선발 기준연령이 37세 이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초계문신의 대·소과 합격연령이 일반 급제자에 비하여 낮은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초계문신의 기준 연한이 37세로 정조대 문과 급제자의 평균연령 39.2세와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 초계문신의 문과 평균 급제연령이 기준연한 37세와 7.4년이 차이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나 정조 대 소과 입격자 2,262명은 소과방목 명단 전체의 평균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정조 대 문과급제자 중에 소과에 입격한 후에 문과에 급제한 이들과 비교해야한다.

<표 13> 정조 대 문과급제자와 초계문신의 소과 입격 비율 및 소과 입격 후 문과 급제까지 걸리는 시간

구분	소과 입격 유정험자				소과 입격 무정험자		총인원(%)
	소과 입격연령 (세)	문과 급제연령 (세)	소과입격 후 문과 급제기간 (년)	대상인원 (%)	문과 급제연령 (세)	대상인원 (%)	
초계문신	26.1	31.2	5.1	78 (54.5)	27.6	65 (45.5)	143(100.0)
정조 대 문과급제자	30.3	39.8	9.5	242 (31.1)	39.1	535 (68.9)	777(100.0)

정조 대 문과 급제자 중 소과에 입격한 비율은 777명중 242명으로 31.1%이지만, 초계문신의 소과 입격률은 68명으로 54.5%다. 비율을 비교해봤을 때 23.4%가 차이 나는데 초계문신이 소과에 입격한 후에 문과에 급제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문과급제과정에서 소과를 거치는 비율뿐만 아니라 소과에 입격 후 문과에 급제할 때까지의 기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정조 대 일반 문과 급제자는 9.3년이 걸렸지만 초계문신은 5.1년이 걸렸다. 초계문신은 문과 급제과정에서 일반 유생들에 비해 소과를 거치는 비율이 높았고, 그 기간도 짧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시험을 거쳐 문과에 급제했을까?

<표 14> 정조 대 문과급제자 출신시험 및 초계문신 문과 급제 출신 시험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출신 시험	식년시	정시	증광시	별시 ⁴⁴⁾	알성시	합계
초계문신 문과급제 출신 시험	32 (22.3)	56 (39.2)	27 (18.9)	15 (10.5)	13 (9.1)	143 (100.0)
정조 대 문과급제자 출신 시험	363 (46.7)	178 (22.9)	120 (15.4)	82 (10.6)	34 (4.4)	777 (100.0)

<표 14>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출신 시험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 급제자의 경우 식년시(46.7%), 정시(22.9%), 증광시(15.4%), 별시(10.6%), 알성시(4.4%) 순이지만, 초계문신의 경우 정시(39.2%), 식년시(22.3%), 증광시(18.9%), 별시(10.5%), 알성시(9.1%)순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정확한 출신 시험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험별로 직부전시 은사자의 비율을 살펴봐야 한다. 직부전시 은사는 사실상 문과급제의 자격을 준 것으로, 그 다음에 열리는 대과에서 직부전시 은사를 사용하여 급제하였기 때문에 해당시험의 일반 응시자와 구분하여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표 15>는 직부전시자를 별도로 분리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5> 정조 대 문과급제자 출신시험 및 직부전시 은사자 비율

시험종류	식년시	정시	증광시	별시	알성시	직부전시	합계
인원	3	29	21	5	13	72	143
(%)	(2.1)	(20.3)	(14.7)	(3.5)	(9.1)	(50.3)	(100.0)

<표 15>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직부전시 은사를 별도의 문과시험처럼 취급한다면, 출신 시험의 비율이 바뀐다는 점이다. 직부전시 은사 72명(50.3%), 정시 29명(20.3%), 증광시 21명(14.7%), 알성시 13명(9.1%), 별시 5명(3.5%), 식년시 3명(2.1%)이 되는데, 식년시와 별시의 비중이 대폭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식년시는 32명중 29명이 별시는 15명중 10명이 직부전시 은사자로 다른 시험에 비해 직부전시 은사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초계문신 중 실제 식년시 출신은 3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명은 최벽(崔璧), 이운항(李運恒), 이영발(李英發)이었다. 최벽은 경주 출신으로 22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고 그해 식년시에서 장원급제 하였는데, 대신을 통해 정조에게 따로 보고될 정도로 특이한 경우이다.⁴⁵⁾ 이운항은 일차유생전장에서 두 차례 수석을 포함하여

44) 남한별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45) 『承政院日記』 正祖 7年 10月 12日, … 上曰, 同年進士及第者, 有之云乎? 在簡曰, 崔璧年纔二

《교육사학연구》 제30집 제2호(2020. 10.)

세 차례 우등을 하였는데, 식년시 복시 초장에서 강경을 통해 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발은 앞서 언급한대로 식년시 복시 종장 책문에서 수석을 차지하였다. 초계문신의 선발과정에서 이들의 이력은 다소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식년시의 경우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부전시 은사자라는 점은 특이하다.

그렇다면 왜 초계문신 중에는 식년시 출신이 유독 적을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시험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 대에 정시와 증광시 알성시는 모두 일경강 없이, 제술로만 진행되었지만, 식년시에는 복시 초장에 강서시험이 있고 별시에는 초시에 회강이 있었다. 제술에서 재능을 보였던 이들이 제술 위주의 시험에 응시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문재를 중요시한 초계문신에 주로 선발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식년시나 별시 출신은 강서시험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술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선호하지 않았고, 문재를 중요시하는 초계문신에 상대적으로 덜 뽑힌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바탕으로, 초계문신의 문과급제 경로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十三, 新榜參進士, 又爲及第, 善於製述云矣。...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인원(%)	평균연령(세)
사학	사학과시	소과	성균관과시	문과		
○	○	○	○	○	15 (10.5)	32.0
○		○	○	○	20 (14.0)	32.5
○	○		○	○	11 (7.7)	31.5
○			○	○	28 (19.6)	28.3
		○	○	○	28 (19.6)	31.8
			○	○	3 (2.1)	28.3
○	○	○		○	2 (1.4)	28.0
○	○			○	3 (2.1)	29.0
○		○		○	2 (1.4)	31.0
○				○	6 (4.2)	26.0
		○		○	11 (7.7)	26.8
				○	14 (9.8)	23.8
87(60.8%)	31(21.6%)	78(54.5%)	105(73.4%)	143(100.0%)	-	-
합계					143 (100.0)	29.6

<표 16>에 의하면 초계문신은 평균 60.8%가 사학을 거쳤고, 21.6%가 사학과시 우등을 경험했다. 54.5%는 소과에 합격했고, 73.4%가 성균관 과시 우등을 경험했다. 초계문신의 문과 급제 경로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소과→성균관과시→문과로 28명(19.6%)과 사학→성균관과시→문과로 28명(19.6%)이다. 두 번째는 사학→소과→성균관과시→문과로 20명(14.0%)이다.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많은 과정을 거칠수록 문과급제 연령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초계문신 중 가장 문과급제 연령이 낮은 경로는 문과에 바로 응시하여 급제한 경우로 평균 급제연령이 23.8세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학출신으로 바로 문과에 응시한 경우로 26.0세이다. 그 다음으로는 소과에 합격 한 후에 바로 문과에 응시한 경우로 26.8세이다. 평균 문과 급제연령이 가장 낮은 세 경로의 특징은 사학과시와 성균관과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문과에 응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효율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학과시나 소과, 성균관과시를 거치지 않고 문과에 곧바로 응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관직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문과에 응시한 14명을 제외한 129명(90.2%)이 성균관과 사학에 소속되어 사학, 사학과시, 소과, 성균관과시 등을 거쳐 문과에 급제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초계문신들은 사학과 성균관을 통해 인재를 교육하고 선발하려고한 정조의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조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사학과시와 성균관과시를 통해 직접 유생들의 실력과 소양을 점검할 때, 이들은 수년에 걸쳐 관학체제 속에서 스스로 문재(文才)를 증명하고 초계문신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정조 대 우수한 인재로 평가되었던 초계문신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초계문신의 문과급제 과정과 관직진출 이력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 연구는 그 가운데, 초계문신이 문과에 급제하기까지의 추이를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초계문신제명록』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를 활용하여 초계문신의 명단을 확정하고,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문과 급제 과정에서 이들의 사학유생 여부, 사학 과시 우등여부, 소과 입격여부, 성균관 과시 우등 여부, 대과 급제 경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조는 초계문신 인원이 부족하거나 새로 방목(榜目)이 발표되어 추가로 초계문신 선발이 필요할 경우, 의정부에 명하여 초계문신을 뽑아 올리게 하였는데 정조는 초계문신의 선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총 17회(의정부 주관 10회, 정조 특교 7회)에 걸쳐 143명이 선발되는데, 의정부가 뽑아 올린 초계문신과 정조가 특교로 뽑은 초계문신 모두 정조가 개인의 면면을 살핀 후에 선발되었다.

둘째 문학에 재능이 있는 이들이 초계문신으로 선발되었는데, 정조는 각종 과시를 통해 유생들의 문예능력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정조는 의정부에서 뽑아 올린 초계문신 명단에서 누락된 인재를 가려낼 만큼 세세하게 유생들의 실력을 알고 있었다. 각종 과시의 답안지를 직접 채점하고 과시의 우등자를 소견하는 과정을 통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해, 사학과 성균관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유생들은 문과에 응시하기 이전에 이미 정조가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셋째 사학과시 우등자의 비율이 31명(21.7%)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초계문신이 뽑힌 37개의 방에서, 37세 이하로 초계문신의 선발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5명이었는데, 연한이 지나 특교로 뽑힌 두 명을 제외하고 29명(52.7%)이 초계문신이 되었다. 즉 사학과시 출신 2명중 1명이 초계문신이 된 셈이다. 이것은 사학과시 우등을 통해 일찍이 문명을 얻은 이들의 상당수가 초계문신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넷째 소과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는 비율이 54.5%로 정조 대 문과 급제자가 소과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는 비율 31.1%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이는 정조가 유생들을 성균관에 유입시키고, 이들이 제술과 경학을 겸비하도록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다섯째 초계문신들은 문과에 급제하기 전 수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성균관 과시에 응시하였다. 초계문신 중 성균관 과시우등자의 비율은 73.4%로 초계문신의 대부분이 성균관 과시 우등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초계문신의 69.9%가 성균관 과시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였다. 문과에서는 직부전시자의 비율이 50.2%로 가장 높았고 정시와 증광시가 각각 20.3%, 14.7%를 차지하였다. 식년시는 2.1%에 불과하였는데, 정조 대 문과급제자의 46.7%가 식년시 출신인 점을 고려한다면 독특한 경향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심상규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초계문신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실제와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문과급제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조 대 일반 문과급제자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추가된다면, 정조 대 인재의 교육과 선발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첫째는 초계문신교육과 관직진출경로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초계문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문과에 급제하는지에 그쳤지만, 어떤 주요 직책들을 역임했는지에 그쳤지만, 초계문신이 어떻게 조정의 주요한 인물로 성장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초계문신이 어떻게 교육되었는지, 어떤 직책들을 역임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는 정조 대 일반 문과 급제자에 대한 연구이다. 초계문신제도가 정조 대 인재의 교육과 선발 과정에서 갖는 의미를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반 문과급제자와의 정확한 비교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1. 자료

- 『승정원일기』
『정조실록』
『초계문신제명록』(奎 9728)
『반상』
『사마방목』
『문과방목』

2. 논저

- 박현순(2014),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김경용(2019), 「조선후기 사학 과시 출신 대제학 연구」, 『교육사학연구』, 29-2.
이상무(2019), 「조선시대 사학 과시 우등 문과 급제자와 지방(강원·충청) 출신 급제자 간의 관직 진로 비교 시론」, 『한국교육사학』, 41-4.
정옥자(1981), 「규장각 초계문신 연구」, 『규장각』, 4.
_____ (1981), 「초계문신교육과 문체정책」, 『규장각』, 6.
정지연(2018), 숙종-정조대 문과의 은사(恩賜) 사용 규정 변화 연구, 『한국교육사학』, 40-4.
최두진(2009), 「정조대의 초계문신 교육제도 연구」, 『교육사상연구』, 23-1.
최광만(2015), 「정조 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 『한국교육사학』, 37-4.
_____ (2016), 「『태학성전』과 『반상과시집』의 위상」, 『한국교육사학』, 41-3.
_____ (2017), 「조선후기 사학 과시 운영실태: 『반상』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9-2.
_____ (2018), 「조선후기 사학 과시 우등자의 과거 진출 추이」, 『한국교육사학』, 40-3.
_____ (2019), 「조선후기 사학 과시 우등 출신의 관직 이력 분석」, 『한국교육사학』, 41-3.

3. 기타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Abstract>

The successful rate in Civil Service
Examination(Dae-gwa, 大科) of
Chogyemoonsin(抄啓文臣) in Jeongjo regime

Jeong, Sangjun

(Doctoral Stud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ses the tendency of the successful rate in Civil Service Examination(Dae-gwa, 大科) of Chogyemoonsin(抄啓文臣) in Jeongjo regime. The total number of the Chogyemoonsin is 143.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eongjo ordered Uijeongbu(議政府) to select Chogyemoonsin if Chogyemoonsin was insufficient or if new List of successful applicants(Dae-gwa, 大科) was announced and additional Chogyemoonsin was needed. A total of 143 people were selected over 17 occasions (10 times under the supervision of Uijeongbu and 7 times under King Jeongjo's special orders). Second, those who have a talent for literature were selected as Chogyemoonsin. King Jeongjo had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students' skills through the process of marking the answer sheets for Seongkunkwan examination(成均館課試) and interviewing the superior in the examinations. Third, the proportion of those with honors in the school examination(Sa-hak Gwa-si 四學課試) was 31 (21.7%) which was quite high. Fourth, 54.5 percent of Chogyemoonsin passed Civil service Examination(Dae-gwa, 大科) after passing the So-gwa, 小科) This figure is 23.4% higher than successful candidates of Common Civil service Examination(Dae-gwa, 大科) in Jeongjo regime. The fifth, Chogyemoonsin concentrated on taking the Seongkunkwan examination over the years before passing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Dae-gwa, 大科).

《교육사학연구》 제30집 제2호(2020. 10.)

Key words : Chogyemoonsin(抄啓文臣), Sa-hak examination(四學課試),
Seongkunkwan examination(成均館課試), Civil service
Examination(Dae-gwa, 大科)

§ 논문 투고 : 2020. 09. 18.

§ 심사 시작 : 2020. 10. 07.

§ 게재 결정 : 2020. 10. 13.